

워즈워스의 비문적 시: 루씨 시편들의 경우

엄 용 희

워즈워스의 시와 비문(碑文)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평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다.¹⁾ 워즈워스가 “비문에 대한 글들(Essays upon Epitaphs)”에서 ‘좋은 비문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아래 ‘시란 무엇이며 시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담아 놓은 아래로, “비문에 대한 글들”은 『서정 담시집』의 서문과 함께 워즈워스의 시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자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문에 관한 논의가 워즈워스 비평 안에서 익숙한 만큼, 개별 시들을 읽는 데에도 풍부한 통찰을 제공해왔던 것 같지는 않다. 한 편으로는 비문이라는 것이 갖을 수 있는 다양한 함의 때문에 워즈워스와 비문을 연결시키는 시각에도 여러 층위가 있어왔다는 점을,²⁾ 또 한 편으로는 막상 ‘비문적 사고’라는 것을 워즈워스의 시학이나 언어관과 관련 시켜 이해할 때에도 그러한 이해 자체에 그칠 뿐 그에 비추어 개별 시들을 꼼꼼히 읽으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잘 알려진 루씨 시편들 가운데 세 편을 워즈워스의 비문적

1) 비문 및 비문을 둘러싼 여러 관심들을 워즈워스 시학의 핵심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는 글들로는 D.D. Devlin, *Wordsworth and the Poetry of Epitaphs*(New York: Barnes and Noble Books, 1981); Frances Ferguson, *Wordsworth: Language as Counter-Spirit*(New Haven: Yale UP, 197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예를 들어, Scodel은 영문학 내에서의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서의 비문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17세기의 존슨(Ben Jonson)으로부터 19세기 초반의 워즈워스에 이르기 까지 비문이 당대 사회와 관련하여 문학 작품 안에서 어떤 함의를 가졌던가를 고찰 한다. 그런가 하면 드 만(Paul de Man)은 비문의 사후성(事後性) — 비문이 항상 죽음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점 — 에 주목하여 비문 자체를 ‘언어의 결핍성’과 연관시키며, 워즈워스와 비문과의 관계도 워즈워스 언어의 회의주의적 측면에 중심을 두어 읽는다. 이러한 비평들이 ‘워즈워스 밖에서’ 워즈워스를 비문과 관련지어 논하였다면, 앞의 주 1번에서 지목한 비평들은 (각각 차이는 있으나) ‘워즈워스 안에서’ 그의 시학을 보다 깊고 세세하게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워즈워스의 ‘비문적 사고(思考)’와 그의 시들의 관계를 친切한 글들이다. Joshua Scodel, *The English Epitaph: Commemoration and Conflict from Jonson to Wordsworth*(Ithaca: Cornell UP, 1991); Paul de Man, *The Rhetoric of Romanticism*(New York: Columbia UP, 1984).

사고가 담긴 시로 읽음으로써, 그러한 독해가 각 시들의 행간에 숨겨진 보다 심장한 의미를 이끌어내 준다는 점, 그리고 각 시들간의 연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워즈워스의 다른 시들을 이해하는 길로 이끈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비문에 대한 글들”에 드러난 워즈워스의 특징적 사고 한 가지를 듣다면, 단절된 대상들간의 연결점을 보려는 노력이다. 비문이라는 것 자체가 본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간 영혼의 존재라든가 내세애의 믿음, 불멸애의 염원 등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해도, 삶과 죽음간의 단절에 대한 워즈워스의 집요한 천착과 그를 통해 ‘연결됨’을 읽으려는 시도는 단순한 문학적 기예나 은유를 넘어서선 것이었다.

첫 번째 “비문에 대한 글”에서 워즈워스는 죽음과 삶을 별개가 아닌 ‘연결된 무한함’으로 보려는 시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한다. 우선, ‘비문’의 존재 원인으로 ‘불멸애의 믿음’을 들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외적 감각으로부터 죽음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인상을 매일 새로 느끼며 거기 따르는 감정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절실하게 느낄 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공감이 어떤 새로운 힘을 얻거나, 심지어 옛 힘을 보존하리라고는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만약에 그같은 인상이 모든 경험들 이전에 존재하는 우리의 내적 존재와의 교감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다면 … 그 러므로, 결론적 추론으로서, 이러한 여러 욕망의 근원인 불멸애의 믿음이 없다면, 죽은 이에 대한 애정 혹은 상찬에서 우리난 기념물인 비석이나 비문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으리라고 추정된다.

it is to me inconceivable, that the sympathies of love towards each other ... could attain any new strength, or even preserve the old, after we received from the outward senses the impression of death, and were in the habit of having that impression daily renewed and its accompanying feeling brought home to ourselves, and to those we love; if the same were not counterbalanced by those communications with our internal Being, which are anterior to all these experiences ...

it follows, as a final inference, that without *the belief in immortality*, wherein these several desires originate, neither monuments nor epitaphs, in affectionate or laudatory commemoration of the deceased,

could have existed in the world.³⁾

이러한 ‘불멸에의 믿음’을 말할 때, 워즈워스의 경우 특징적인 점은 이를 감상적 집착이 아닌 엄연한 이성적 사유의 결과라고 본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고를 드러내는 또 한 부분으로, 어린 시절 갖게 되는 ‘내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삶의 근원에의 의문과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사후(死後) 향방에의 물음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워즈워스는 강가에 서서 강물을 골똘히 들여다 보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물음들에 내재한 ‘무한함에의 의식’을 말한다.

근원과 향방은 서로 불가분으로 연관되는 개념들이다. 어린 아이가 강가에 서서, 도대체 어떤 힘이 저 영원한 흐름을 놓는 것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한다면, 그의 생각은 이러한 또다른 의문으로 내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심연을 향해서 이 강물은 흘러 가고 있는 것일까? 어떤 그릇이 저 강력한 유입(流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대답의 정신에는 필연코 … 지도(地圖)나 실제 자연에서 본 이미지가 뒤따랐을 것이다. — 이것을 글자(기표)로 본다면 대답의 정신(기의)은 불가피하게 — 한도가 없는 그릇이나 용적; — 무한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멸에의 감각이, 이성과 같이 태어나 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는지 몰라도, 그 최초의 자손들 가운데에 있다고 주장해도 좋으리라.

Origin and tendency are notions inseparably co-relative. Never did a child stand by the side of a running stream, pondering within himself what power was the feeder of the perpetual current, from what never-wearied sources the body of water was supplied, but he must have been inevitably propelled to follow this question by another: ‘Towards what abyss is it in progress? what receptacle can contain the mighty influx?’ And the spirit of the answer must have been ... accompanied perhaps with an image gathered from a map, or from the real object in nature — these might have been the letter, but the spirit of the answer must have been as inevitably, — a receptacle without bounds or dimensions; — nothing less than infinity. We may then, be justified

3)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ed. W.J.B. Owen(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123-4. (강조 인용자)

in asserting, that *the sense of immortality, if not a co-existent and twin birth with Reason, is among the earliest of her offspring*⁴⁾

이처럼 바다로부터 와서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의 흐름에서 ‘무한성’에의 예감을 읽으며 그것에 이성적 사유라는 이름을 부과하는 워즈워스로부터,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 여행을 마찬가지의 무한 궤도 위의 여행으로 보는 그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의 자전적 장시인 『서시 (The Prelude)』에서 그가 지나간 자신의 과거를 읽기 위해, 또한 내면의 행로를 읽기 위해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비유가 ‘강물을 따라가는 여행자’의 비유로서, 앞에서 인용한 ‘강가에 서서 강물을 골똘히 들여다 보는 어린 아이’의 이미지와 겹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⁵⁾

워즈워스는 이러한 ‘연결된 무한함’에의 의식으로부터 ‘삶’과 ‘죽음’ 간의 연결, 혹은 이미 죽어버린 시간인 ‘과거’와 ‘미래’의 연결을 읽고자 하며, 그의 시에서 상상력은 종종 이러한 의미의 확장 혹은 연결을 불러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단절’의 회복에 대한 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개별적 인간과 인간간의 끊어진 유대를 잇는 기제로도 똑같이 작용하는 바, 이는 ‘삶과 죽음간의 연결’이라는 주제와 맞물리면서 바로 비문적 시의 핵심적 내용과 지향을 드러내 준다. 어떤 의미에서 워즈워스의 시쓰기는 바로 이러한 중층적 의미의 ‘회복’ 혹은 ‘연결’을 위함이고, ‘상상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며, 그가 보기에 최상의 ‘언어’는 바로 그러한 회복을 실현시킬 주체였다.

“루씨 시편”들은 그 각각이 하나의 ‘비문’이라고 보아도 좋을 만큼, ‘죽은 루씨’를 떠올리는 화자의 의식 상태에 초점을 맞춘 시들이다.⁶⁾ 이 시편

4) 같은 글, 122-3. (진한 필체 강조는 본문, 이탤릭 강조는 인용자)

5)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다. “As one who hangs down-bending from the side / Of a slow-moving boat, upon the breast / Of a still water, ... / Such pleasant office have we long pursued / Incumbent o'er the surface of past time / ...” (4:256-272) ; “Even as a river, — partly (it might seem) / Yielding to old remembrances, and swayed / In part by fear to shape a way direct, / That would engulf him soon in the ravenous sea — / Turns, and ... / Seeking the very regions which he crossed / In his first outset; so have we, my Friend! / Turned and returned with intricate delay.” (9: 1-8) 이상의 인용은 모두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1799, 1805, 1850, eds. by Jonathan Wordsworth, M.H. Abrams, and Stephen Gill (New York: W.W. Norton, 1979)를 이용하였고, 세 가지 판본 중 1850 판본을 인용하였다.

6) 이와 관련하여, Hartman은 루씨를 ‘천적으로 시인의 내면으로부터 보아지는 (She

들이 갖는 공통점은 ‘잠/깨어남’의 2원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루씨의 ‘삶/죽음’이라는 두 상황을 다루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살아 있을 때의 루씨에 대한 묘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있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되비추어 보는 시점으로 ‘죽음’에의 가정이나 실제 묘사가 이어지는데, 이 때 후자의 시선은 ‘잠’ 혹은 ‘미망(迷妄)’으로부터의 ‘깨어남’의 상황이라는 암시가 주어진다.

여러 편의 시들이 진행되면서⁷⁾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루씨라는 대상이 점차 사라진다는 점, 즉 루씨의 죽음이 점차 확정된다는 점과, 이와 더불어 화자(話者)의 깨달음은 점차 역동적이 된다는 점이다. “이상한 감정의 격발을 나는 겪었네 (Strange Fits of Passion Have I Known)”에서 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화자가 루씨를 만나러 말을 타고 가는 부분으로, ‘루씨의 오두막(Lucy's co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등, (비록 루씨 자신은 아닐지도라도) 루씨가 있는 곳이 확연히 지적됨으로써, 살아있는 루씨가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시이다.⁸⁾ 물론, 이와 동시에 화자는, 달을 보며 죄면 상태에서

is seen entirely within the poet)’ ‘의식의 중재적 양태 (intermediate modality of consciousness)’라고 지적한 바 있다. Geoffrey H. Hartman, *Wordsworth's Poetry 1787-1814*(New Haven: Yale UP, 1964) 158-62.; 또한, Murray는 ‘감각에서 사색으로의 전이(a crossing-over from sensation to thought)’가 루씨 시편들의 주제라고 하면서, 루씨의 죽음은 실제의 어떤 죽음의 이야기라기 보다도 워즈워스 자신의 ‘사색에 눈뜸(birth of thought)’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Roger N. Murray, *Wordsworth's Style: Figures and Themes in the Lyrical Ballads of 1800*(Lincoln: U. of Nebraska P, 1967) 125-6.

7) 루씨 시편들이 지어진 순서에 대하여는 일치된 견해가 별로 없지만, 대개 “Strange Fits of Passion Have I known”,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A Slumber Did My Spirit Seal”, “Three Years She Grew”(이상 1799년에 썼어지고, 1800년 판본 *Lyrical Ballads*에 실림), “I Travelled among Unknown Men”(1801년 4월에 썼어짐)의 순서를 따른다. “Lucy Gray”(1799년 썼어짐)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제재를 얻어 쓴 것으로, 루씨 시편들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넣는 경우도 있다. Mary Moorman,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Oxford: Clarendon P, 1957) 416-9; Jean Brenkman, *Poetic Language in Wordsworth's Lyrical Ballads: Theory and Practice*(Diss. U. of Iowa, 1976) 161 등 참조.

8) 초기의 수고(手稿) (MS.1799)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시의 끝에 첨가되어 있어서 루씨가 ‘이미 죽은’ 상황으로 상정되는 동시에, 루씨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등으로, 살아 있는 루씨의 모습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워즈워스는 루씨의 ‘삶/죽음’ 및 화자의 ‘잠/깨달음’의 구조를 보다 암시적인 은유의 틀 안에서, ‘상상력’ 속의 일로 제시하고자 한다. “I told her this: her laughter

걸어가는 부분이 길게 강조되는 가운데, ‘꿈’을 꾸는 ‘미망(迷妄)’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부각된다.

달에 줄곧 시선을 두며
너른 들판을 건넜네;
나의 말은 종종 걸음치며 가까이 갔네
내게 그토록 소중한 오솔길로.

이윽고 과수원 마당에 다다랐고,
우리가 언덕에 올랐을 적에,
지는 달은 루씨의 오두막으로
내려 왔다네, 더욱 가까이.

나는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네,
친절한 자연의 가장 상냥한 선물!

Upon the moon I fixed my eye,
All over the wide lea;
With quickening pace my horse drew nigh
Those paths so dear to me.

And now we reached the orchard-plot;
And, as we climbed the hill,
The sinking moon to Lucy's cot
Came near, and nearer still.

In one of those sweet dreams I slept,
Kind Nature's gentlest boon!⁹⁾

이러한 부분이 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끝부분의 극적 반전은 다른 루씨 시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다. 물론, 갑작스러운 끝맺음과 가정법의 효과로 인해 여운이 남지만, 그 여운은 이 시 안에서 전

light / Is ringing in my ears: / And when I think upon that night / My eyes are dim with tears." William Wordsworth, *The Poetical Works of William Wordsworth*, eds. E.D. Selincourt and Helen Darbishire, 5 vols(Oxford: Clarendon P, 1947) vol. 2, 29.

9) William Wordsworth, *The Poetical Works*, vol. 2, 29.; William Wordsworth, *Lyrical Ballads, and Other Poems, 1797-1800*, eds. James Butler and Karen Green(Ithaca: Cornell UP, 1992) 162.

체를 장악하는 것이라기보다 다음 시편과의 사이에, 행간에 묻혀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루씨의 ‘죽음’은 하나의 가정으로 암시될 뿐이며, 전체적으로는 루씨는 살아 있으나 화자는 죽면 상태, 혹은 선잠이 든 상태라는 메시지가 강하고, 다만 극적 반전으로 인한 여운이 다음 편을 예기하게 하는, 혹은 다른 루씨 시편을 향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나의 말은 움직였네; 한 발 또 한 발
옮기며, 결코 멈추지 않았네:
그러다가 오두막 지붕 밑으로
갑자기, 달이 뚝 떨어졌네.

무슨 어리석은 분방한 생각이 스미는 걸까
연인(戀人)의 머릿속에!
“오 제발!” 나는 속으로 외쳤네,
“만일 루씨가 죽는다면!”

My horse moved on; hoof after hoof
He raised, and never stopped:
When down behind the cottage roof,
At once, the bright moon dropped.

What fond and wayward thoughts will slide
Into a Lover's head!
“O mercy!” to myself I cried,
“If Lucy should be dead!”¹⁰⁾

전체적으로, 말을 타고 걸어가는 동작의 반복성으로부터 ‘잠’의 언급에 이르기까지 화자의 ‘살아있는’ 상태는 루씨의 ‘죽음’에 대한 예감과 대비되는데, 이 때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는 쪽은 후자이다. 즉, 살아있는 루씨와 화자는 ‘잠’의 상태로 그려지는 반면, 루씨의 ‘죽음’에의 예감이 오히려 화자를 ‘깨어나게’ 한다는 구조이다.

이렇듯, ‘삶과 잠’ 및 ‘죽음과 깨달음’이라는 이중 구조는 다음 시편인 “그녀는 인적(人跡) 없는 길가에 살았네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에 가면 조금 더 확연히 부각된다. 이제 루씨는 한 송이 ‘꽃’이나

10) 같은 면.

‘별’ 하나로 비유됨으로써 살아있는 실체라는 느낌은 반감(半減)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루씨의 익명성이다.

칭찬해 주는 이 하나 없고
사랑해 주는 이도 거의 없던 소녀:

...

살았을 때도 남의 눈에 띄지 않았고,
루씨가 죽었어도 아는 이 없었네.

A Maid whom there were none to praise
And very few to love:

...

She lived unknown, and few could know
When Lucy ceased to be;¹¹⁾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있는 것은 앞의 시와 같지만, 두 행의 간략한 반전이 놓는 효과는 앞의 시의 경우보다 선명하다.

그러나 그녀가 무덤에 있네, 오,
내게는 그 차이라니!

But she is in her grave, and, oh,
The difference to me!¹²⁾

즉, 루씨는 죽은 상태로 확정이 되어 앞부분과 함께 ‘삶/ 죽음’의 대조를 보다 명확히 이루거니와,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의 의미를 모르다가 죽고 나니 ‘이제야 알겠더라’ 하는 ‘삶/ 깨달음’의 대비 역시 이전의 “이상한 감정의 격발을 나는 겪었네(Strange Fits of Passion Have I known)”에서보다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다. 그녀의 익명성은 마치 ‘남들이’ 그녀를 몰랐다는 식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마지막 두 행을 참고하건대, 실상은 ‘내가’ 그녀의 참 의미를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는 외침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상한 감정의 격발을 나는 겪었네(Strange Fits of Passion Have I

11) Wordsworth, *The Poetical Works*, vol. 2, 30; Wordsworth, *Lyrical Ballads*, 163.

12) 같은 면.

known)"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시의 앞부분을 '되비추는' 효과, 그리하여 시 전체를 장악하는 효과를 갖는데, 이는 시제의 차이에도 힘입은 바 크다. 마지막 두 행은 현재 시제로 처리됨으로써 과거 시제로 기술된 앞부분을 '다시 보는' 양상이 되며, 앞부분에서의 '내가 루씨의 참의미를 몰랐다' 혹은 '잠이 들어 있었다' 와도 같은 의미는 이러한 '재해석 (revision)'이 있음으로써만 비로소 선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앞의 시 ("Strange Fits of Passion Have I known")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죽음'과 관련된 '깨달음' 부분이 보다 선명해지는 양상은, 이 시와 뒤에 이어지는 "선잠이 내 영혼을 가리웠었네 (A Slumber Did My Spirit Seal)"의 관계에서도 재차 일어나며 점증된다. 이 시에 이르러서는 '삶(잠)'의 상태와 '죽음(깨달음)'의 상태가 각각 1연과 2연을 차지함으로써 형식상 같은 비중을 나누어 가지며, 그만큼 후자(죽음 및 깨달음의 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1연에서의 살아 있을 때의 루씨는 "그녀는 인적(人跡)없는 길가에 살았네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에서의 '꽃' 또는 '별'의 비유보다도 한층 더 사물화 된 'thing'으로만 지시될 뿐이며, 이러한 루씨가 죽은 후 화자가 얻는 '깨달음'을 다룬 2연이 앞의 1연을 되비추어 보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관장하므로, 결국 이 시는 '깨달음'에 관한 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그리고 앞의 다른 루씨 시편들에서 암시적으로 환기되었던) '깨달음'의 특징은 바로 그 '깨달음'으로 인해 '삶'과 '죽음'을 같은 모습으로 겹쳐 보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삶'인 줄 알았던 것이 '죽음'과도 같은 '잠(미망)'의 상태였으며, 또한 '죽음' 역시 보다 깊이 투시하건대 '삶'과 같은 역동적 모습일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곧 '깨달음'의 내용인 것이다.

선잠이 내 영혼을 가리웠었네,
나는 인간의 두려움을 몰랐네:
그녀는 느낄 수 없는 존재 같았네
이 지상의 세월의 흐름을.

동작도 없고 힘도 없네, 이제 그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네;
지구의 자전 속에 함께 돌 뿐,
바위와 돌과 나무와 같이!

A slumber did my spirit seal,
 I had no human fears:
 She seem'd a thing that could not feel
 The touch of earthly years.

No motion has she now, no force;
 She neither hears nor sees;
 Roll'd round in earth's diurnal course
 With rocks and stones and trees!¹³⁾

1연이 살아있을 때의 그녀를 보던 ‘과거’의 화자 모습이라면, 여기에 죽은 후의 그녀를 보는 ‘현재’의 화자 모습이 2연으로 겹쳐진다. 이 때, 다양한 방법으로 ‘삶/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다른 것 사이의 ‘섬세한 연결’을¹⁴⁾ 읽는 의미가 획득되는데, 이는 바로 2연에서의 ‘깨달음’으로 1연을 다시 ‘비추어봄으로써’ 가능해지는 의미들이다.

우선, 1연에서 ‘살아 있음’의 묘사는 주로 ‘죽은 듯함’의 비유로써 그려짐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선잠이 영혼을 가리운’ 상태이며, 이 때의 잠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미망(迷妄) 혹은 죽음까지도 암시한다. 그녀 또한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마치 정지한 ‘사물(a thing)’과도 같은 존재여서, 화자인 ‘나(I)’와 함께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2연에서는 그녀가 ‘죽었음’을 말하는데도 1연과 대조적으로 ‘움직임’이 지배적이다. 우선 ‘동작(motion), 힘(force)’과도 같은 단어들이 (물론 구문 상으로는 부정문 속에 들어 있지만) 5행에 나타나서 1연과 대조되는 ‘움직임’의 상태를 독자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며, 이는 ‘지구의 자전(自轉) 속에 함께 돈다’는 7, 8행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이제 ‘움직임’

13) Wordsworth, *Lyrical Ballads*, 164.

14) 두 번째 “비문에 대한 글”에서 워즈워스는 (두가지 대상 사이의) 단절됨을 (혹은 ‘대조’를) 파악하는 시선보다는 ‘서로 대조되는 듯하여도, 그 가운데서 더욱 섬세한 연결점을 보는’ 시선을 ‘인간 본성의 최고의 감정들’로 높이 평가한다. “Each of these Sages was in sympathy with the best feelings of our nature; feelings which, though they seem opposite to each other, have another and a finer connection than that of contrast. — It is a connection formed through the subtle progress by which, both in the natural and the moral world, qualities pass insensibly into their contraries, and things revolve upon each other.” (강조는 인용자에 의함) William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24.

은 2연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장될 뿐 아니라 ‘자전(自轉)’이라는 말에서 전 지구적 역동성을 얻는다.

이처럼 삶과 죽음을 서로 단절된 대상들로 파악하지 않고, 병치시켜 양자 간의 ‘연결점’을 보려는 시각은 1연과 2연에 쓰인 표현들간의 밀착성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예를 들면, 1연에서의 ‘earthly’와 2연에서의 ‘earth’s’는 둘 다 시간의 개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다.¹⁵⁾ 산 자의 시간과 죽은 자의 시간을 ‘earth’라는 같은 단어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삶/잠’의 상태인 1연은 과거 시제이고 ‘죽음/깨어남’인 2연은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과거의 참 의미가 ‘현재’에 와서야 비로소 읽힌다는 암시가 주어지는 것도 “그녀는 인적(人跡) 없는 길가에 살았네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에서와 같다. ‘깨달음’으로써 과거를 ‘다시 보아(re-cognition)’ 제대로 ‘안다(recognition)’는 의식의 회로가 그려짐으로써¹⁶⁾ 시간의 흐름은 ‘과거로부터 현재로’가 아니라 ‘현재로부터 과거로’ 흐르게 되고, 이러한 의식 속의 역(逆)회로가 실제상의 시간 흐름과 중첩되면서 ‘과거’를 ‘현재’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시간의 정지’ 와도 같은 순간을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한 감정의 격발을 나는 겪었네 (Strange Fits of Passion Have I known)”에서부터 예감된 ‘삶/죽음’의 교직(交織)은 “그녀는 인적(人跡) 없는 길가에 살았네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를 거쳐 “선잠이 내 영혼을 가리웠었네 (A Slumber Did My Spirit Seal)”에 이르는 동안의 반복적인 ‘재응시(再凝視)’와 이에 따르는 세밀한 장치들을 통하여 점차 의미의 확장을 일으켜, “선잠이 내 영혼을 가리웠었네”에 이르러 워즈워스 특유의 ‘가리워진 것을 젖히고 보는’ 깨달음에, 곧 ‘삶과 죽음이 다

15) Brenkman, 앞의 책, 166.

16) Hartman은 워즈워스의 시에서 ‘잔상(殘像)’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원래 경험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발생하지만 여전히 그 경험의 일부가 되는 면을 중요한 것으로 지적한다. 이 때, ‘다시 생각함(re-cognition)’이 ‘비로소 깨달음(recognition)’이 된다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 이는 비단 ‘잔상’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루씨 시편들에서 보이는 (혹은 워즈워스의 다른 중요 시편들에서도 종종 보이는) ‘깨달음’의 현상 — 여러 번 ‘다시 봄’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새로이 ‘깨닫는다’는 현상 — 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음미할 만하다. “The after-image or echo may occur at a distance from the original experience, and still be part of it. ... The lapse of time seems to be a relatively unimportant factor, since Wordsworth's point is that the renewal of the image — or of the inner person through the image — occurs despite time. ... The after-image could be defined as a *re-cognition that leads to recognition*.” Hartman, 앞의 책, 269-70.

르지 않음'을 보는 역설적 시선에 다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가리워진 것'과 그것을 연 '깨달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옷/몸'의 비유가 워즈워스의 시에서 차지하는 의미심장한 역할에 대하여 새삼 주목하게 된다. 세 번째 "비문에 대한 글"에서 워즈워스가 '말(words)'에 대해 대해 직접 언급한 유명한 부분을 보면, '사유(thought)'를 그대로 체화하여 전달하는 이상적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의 경우가 (즉, 언어가 '정신(spirit)' 및 '반정신(反精神, counter-spirit)'이 되는 상반적인 경우가) '옷/몸' 관계의 비유를 빌어 표현된다.

말은 좋은 경우로나 나쁜 경우로나 가벼이 여기기에는 너무나 큰 도구이다: 다른 모든 의적인 힘보다도 말이 사고(思考)에 대해 더 지배력을 갖는다. 만약 말이 (이전에 썼던 은유를 반복한다면) 사유(思惟)의 체화(體化)가 아니라 오로지 사유(思惟)위에 입혀진 옷이라면, 확실히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독(毒) 묻은 조끼처럼 … 입은 사람을 올바른 마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소모시킬 것이다. 언어란, 북돋우고, 살찌우고, 고요히 놓아두지 않으면, … 끊임 없고도 소리 없이 교란시키고, 뒤집고, 훼손하고, 손상시키고, 해체하려고 작용하는 반정신(反精神)이 된다.

Words are too awful an instrument for good and evil to be trifled with: they hold above all other external powers a dominion over thoughts. If words be not (recurring to a metaphor before used) an *incarnation of the thought* but only a *clothing for it*, then surely will they prove an ill gift; such a one as those poisoned vestments ... which had power to consume and to alienate from his right mind the victim who put them on. Language, if it do not uphold, and feed, and leave in quiet, ... is a *counter-spirit*, unremittingly and noiselessly at work to derange, to subvert, to lay waste, to vitiate, and to dissolve.¹⁷⁾

이러한 '옷/몸'의 비유는 물론 문학작품 안에서 익숙한 전통적 비유이지만, 여기에서 워즈워스가 생각한 이상적 시어 혹은 언어¹⁸⁾가 '사유의 체화'

17)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I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54. (강조 인용자)

18) '시어'와 '언어'는 명확히 구분되는 표현이지만, 워즈워스에게 있어서는 '언어'가 그 역할을 가장 제대로 해 낸 상태가 곧 '시어'라고 할 만큼 그 둘을 같은 선상에

(incarnation of the thought)’라고 표현됨으로써 두 가지 분리되어 있던 것의 통합을 지향할 때, 그 근저의 비유로 작용한다. 언어가 제대로 ‘복돌우고, 살찌우고, 고요히 놓아두지’ 않을 때 ‘독(毒) 묻은 조끼’처럼 해악을 준다는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체화’에의 지향이 실패했을 경우에 오히려 ‘웃’ ‘몸’을 죽이는 (즉, 언어가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현상이 일어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역(逆)으로 가정(假定)해 보면, 제대로 ‘복돌우고, 살찌우고, 고요히 놓아둘 때’의 언어는 ‘웃’ ‘몸’의 2원적 단계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간 통합적 단계, 즉 ‘체화(incarnation)’ 된 ‘정신(spirit)’의 단계로 승화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⁹⁾

그러므로 “선잠이 내 영혼을 가리웠었네”의 화자가 ‘가리웠던 잠’의 장막을 걷어내고 얻는 깨달음 역시 ‘웃/몸’과도 같은 2원적 상태로부터의 승화, 즉 ‘언어’가 그것이 담고 있는 ‘생각’과 하나로 ‘체화’되어 ‘정신’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그런 것으로 읽힌다. “비문에 대한 글들”에 의거하여 “루씨 시편”을 읽으면서, 주제상으로 ‘분리된 대상 간의 연결점’을 보려는 노력에(특

놓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언어 (language really used by men)’로 시를 쓰겠다거나 ‘시의 언어와 산문의 언어 간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it may be safely affirmed, that there neither is, nor can be, any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language of prose and metrical composition)’는 『서정 담시집』 서문에서의 주장들은 이러한 워즈워스의 인식을 잘 드러내 준다. Wordsworth, “Preface and Appendix to *Lyrical Ballads*(1802)”,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71, 76, 77, 91 등 참조.

19) 이렇게 볼 때,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독특한 경험의 순간 및 그것을 담아내는 표현들이 종종 바람소리, 물소리 등으로 나타남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서시(The Prelude)』 5권에서 언어의 함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면, 이상적 상태의 시어는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 투사된다. 또한, ‘감각의 빛’이 꺼진 ‘어둠’으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드러나는 형상이기도 하며, ‘투명한 베일’의 비유로 인해 역시 ‘웃/몸’의 비유로 연결된다. ‘자신의 것이 아닌 영광’이라는 끝부분의 언급에서 언어가 ‘정신(spirit)’으로 체화된 상황(즉, 2원적 단계에서 일원화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진 상황)임이 암시된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인용한 세 번째 “비문에 대한 글”에서의 ‘자유의 체화’ 언급과 겹쳐지는 부분이다. “Visionary power / Attends the motions of the viewless winds, / Embodied in the mystery of words: / There, darkness makes abode, and all the host / Of shadowy things work endless changes there, / As in a mansion like their proper home. / Even forms and substances are circumfused / By that transparent veil with light divine, / And, through the turnings intricate of verse, / Present themselves as objects recognised, / In flashes, and with glory not their own.” (5: 595-605, 강조 인용자)

히 ‘삶과 죽음’의 통합성을 보려는 노력에) 우리가 주목하였다면, 이제 그러한 내용을 드러내는 시어 역시도 워즈워스의 경우 ‘언어와 그 안에 담긴 생각’ 간의 ‘체화’ 혹은 ‘일치’를 지향하여, ‘언어를 넘어서 상태의 영광’을 지니는 ‘바람’ 혹은 ‘빛’으로 탈바꿈할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워즈워스의 시어는 종종 불가피하게 ‘언어/침묵’의 경계선상에 놓이기를 원하고, “루씨 시편” 역시 상세한 설명 없이 아주 응축된 몇 마디 말만으로, 독자의 감성 속에 이는 파장에 의지하여 감동적인 깨달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서정 담시집 (Lyrical Ballads)』 서문에서 밝힌 대로 워즈워스가 주력하였던 ‘인간 마음의 근본적 감동(the essential passions of the heart)’의 전달²⁰⁾은 언표(言表)된 바 이상의 의미를 읽는(워즈워스 식으로 말하면 ‘침묵 속에 매달려 귀기울이는’²¹⁾ 독자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워즈워스가 “루씨 시편”들을 통해 전해주려 한 ‘감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그리며 우리 마음 속에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일까? 이미 ‘삶과 죽음’ 간의 ‘연결점’을 읽으려는 시도라는 점은 지적하였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천착하기 위해서 다시 “비문에 대한 글들”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워즈워스가 구체적으로 비문의 어떤 특성을 중시하였는지, 그리고 비문의 가장 중요한 특질들로 거론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이와 연관지을 때, “루씨 시편”들은 워즈워스의 ‘비문(碑文)적 시’로 읽히며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비문에 대한 글”에서 워즈워스가 비문의 제1요건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마음에 곧장 호소하는 어조’이며 ‘인간성이라는 보편된 언어’이다.²²⁾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비문에 대한 글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워즈워스는 ‘진실한 애도의 마음’을 비문의 필수적 요건으로 강조한다.²³⁾

20) Wordsworth, “Preface”,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71.

21) 『서시 (The Prelude)』 5권에 실린 ‘와이난더의 소년’ 일화 가운데의 한 구절.

“when a lengthened pause / Of silence came and baffled his best skill, / Then sometimes, in that silence while he hung / Listening, a gentle shock of mild surprise / Has carried far into his heart the voice / Of mountain torrents;” (5: 379-84, 강조 인용자)

22) “The first requisite, then, in an Epitaph is, that it should speak, in a tone which shall sink into the heart, the general language of humanity as connected with the subject of death ...”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28-9.

이 글들에서 워즈워스는 포우프(Alexander Pope)가 쓴 비문들을 비판하는 데, 그 이유는 진실한 마음 없이 기예에 의존하여 썼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운문보다는 자연스러운 산문으로 쓴 비문을 칭찬하는데, 그 이유도 ‘평범하고도 진부한 생각’을 가장 진솔하게 담아낸 것이기 때문이다.²⁴⁾ 그리하여 워즈워스가 보기야 ‘완벽한 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된다.

어떤 자연스럽고 우연한 표현을 써서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그와 함께 권고와 훈계를 통해 죽은 이가 산 이들에게 보내는 관심과 염려가 표현되도록 하라.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애도의 마음과 염려가 [비문 전체에] 확장되어, 특정한 개인의 일이던 것이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일임을 느끼게 해 주도록 하라 — 그러면 완벽한 비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현실화되는 것이다

Bring forward the one incidental expression, a kind of commiseration, unite with it a concern on the part of the dead for the well-being of the living made known by exhortation and admonition, and let this commiseration and concern pervade and brood over the whole so that what was peculiar to the individual shall still be subordinate to a sense of what he had in common with the species — our notion of a perfect Epitaph would then be realized²⁵⁾

이렇게 볼 때 “루씨 시편”들에서 워즈워스가 지향하는 삶과 죽음의 ‘연결’ 또한 단순한 역설이나 의식의 진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애도의 마음에서 우러난 ‘감성(passion)’의 울림을 내포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우연한 표현(one incidental expression)’에서 감동을 도출한다는 구도는 워즈워스가 『서정 담시집(Lyrical Ballads)』 서문에서 밝힌 그의 시작의 원칙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면서,²⁶⁾ 동시에 “루씨 시편”들이 그 간결

23)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47-9;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I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51, 158 등 참조.

24) “it is not only no fault but a primary requisite in an Epitaph that it shall contain thoughts and feelings which are in their substance common-place, and even trite.”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48-9.

25)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I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58.

26) 워즈워스는 당대에 유행하던 시들과 자신의 시를 구별짓는 중요한 한 요소로 ‘감정이 행동과 상황에 중요성을 부여함’을 듣다. 이는 야단스런 행동과 조야하고 거칠

한 어조와 ‘삼가는 자세’를 통해 전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바다.²⁷⁾

이러한 워즈워스 시어의 특징을 이미 앞에서도 ‘언어/침묵’의 경계선상에 오르기를 원하는 시어라고 표현한 바 있거니와, 장황한 설명 없이 응축된 표현들이나 같은 주제의 변주(變奏)인 여러 시편들간의 관계가 울려내는 숨은 의미를 “루씨 시편”들로부터 읽어내기 위해서, 워즈워스의 또 다른 작품인 “허물어진 오두막(The Ruined Cottage)”²⁸⁾의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가렛(Margaret)의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 도붓장수 아미타쥬(Armytage)는 죽은 이를 그리는 절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적 창조력의 원천을 보는데, 이 때에 그가 말하는 시는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우러나는 비가(悲歌)이자 ‘비문’을 원형(原型)으로 한다.

은 상황 묘사로부터가 아니라, 사소한 단 하나의 표현으로부터 감동의 울림을 불러 일으키기를 지향하는 그의 시학의 특성을 말해 준다. 워즈워스가 그러한 예로 든 “아이 없는 아버지(The Childless Father)”의 경우 뿐 아니라, 루씨 시편이 환기하는 ‘애도의 마음(commiseration)’ 역시 그러한 시작(詩作)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I should mention one other circumstance which distinguishes these Poems from the popular Poetry of the day; it is this, that the feeling therein developed gives importance to the action and situation, and not the action and situation to the feeling.” Wordsworth, “Preface”,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71.

- 27) Ferguson은 “루씨 시편”들에 대하여 ‘금욕주의적 자세(ascetic stance)’를 취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워즈워스의 시어들 자체가 담담한 어조와 제한적 자세를 지니되 각 시어들의 울림에 의해 감동이 확장되기를 지향한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With the Lucy poems, Wordsworth's poetics move into an almost unimaginably ascetic stance in which poetry appears to admit that it can justify itself neither as self-expression nor by an appeal to the reality of its subjects.” Ferguson, 앞의 책, 193-4.
- 28) 주지 하다시피 “The Ruined Cottage”는 워즈워스가 수차례에 걸친 복잡한 개고(改稿) 및 편집 과정을 거쳐서 1814년에 *The Excursion*의 1권으로 발표한 작품이라서 여러 판본이 있다. 흔히 E.D. Selincourt의 *The Poetical Works of William Wordsworth* 5권에 실린 MS. B를 대표적 판본으로 다루지만, 여기에서는 Norton Anthology에 실린 MS. D를 대상으로 하였다. MS. B보다 끝부분이 간략한 대신, Norton 편자의 표현대로 마가렛(Margaret)의 “말없는 고통의 이야기(a tale of silent suffering)”가 더욱 잘 드러나 있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도붓장수(peddler)의 사색 부분이 250행 이상 침가되어 있어서, ‘죽음 앞에서의 사색’이라는 “루씨 시편”들에서의 주제와 공통된 의식을 찾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William Wordsworth, “The Ruined Cottage,”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eds. M.H. Abrams(et al.), two vols.(New York: W.W.Norton, 1979) vol. 2, pp. 183-195.

우리가 죽으면, 친구여,
 우리만이 아니라, 각자가 사랑하던 것과
 이 땅 위 한 곳에서 소중히 여기던 것들도
 함께 죽거나, 변화한다오, 그래서 조만간
 선인(善人)의 흔적도 남지 않지요.
 시인들은, 비가(悲歌)와 노래로써
 죽은 이를 애도하고, 숲을 부르며,
 슬퍼하라 외치오, 언덕과 시냇물에,
 무감각한 바위에 — 그러나 뜻없지 않으니,
 그들은 이러한 기원(祈願)으로써
 인간 감성에서 우러난 강한 창조적 힘에
 순응하는 목소리를 얻는다오.

We die, my Friend,
 Nor we alone, but that which each man loved
 And prized in his peculiar nook of earth
 Dies with him, or is changed, and very soon
 Even of the good is no memorial left.
 The Poets, in their elegies and songs
 Lamenting the departed, call the groves,
 They call upon the *hills* and *streams* to mourn,
 And senseless *rocks* — nor idly, for they speak
 In these their invocations with a voice
 Obedient to the *strong creative power*
*Of human passion.*²⁹⁾

여기에서, 죽은 이를 그리며 ‘언덕(hills), 시냇물(streams), 바위(rocks)’ 등을 불러 탄식함은 감성(passion)에서 우러나오는 ‘창조적 힘(creative power)’에 순응하는 목소리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들은 바로 “선잠이 내 영혼을 가리웠었네(A Slumber Did My Spirit Seal)”의 7, 8행에서 ‘바위, 돌, 나무(rocks and stones and trees)’와 함께 자전(自轉)하는 루씨를 보는 화자의 ‘깨달음’의 내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타쥬의 지적은 “선잠이 내 영혼을 가리웠었네”에서의 간결한 두 행의 외침이 절절한 탄식의 외침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29) 같은 글, p. 185, ll. 68-79. (강조 인용자)

또한 바위나 언덕에 생명력이 입혀짐이 ‘절실한 감정’에서 우러난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점은, 마가렛의 이야기를 전하는 중에 아미타쥬가 그녀의 슬픔에 자신이 어떻게 공감하였는가를 말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다시 확인된다.

선생, 나는 느끼오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남아 사라지지 않음을.
길고 지루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내 영혼은
그 여인에게 매달리오. 그녀의 모습과 태도와
존재가 그토록 낯익게 눈에 보여서, 그리고
그녀의 선함을 가슴깊이 느끼어서,
걸어다니면서도 드물지 않게
잠깐씩 망연(茫然)함이 찾아 온다오,
그러면 혼자서 나는 생각하오,
슬픔에 지쳐 잠든 혹은 떠나간 이를,
필연코 다시 깨어날 사람,
인간의 삶으로, 혹은 인간의 삶과 아주 비슷한
그 무엇으로, 그로 인해 그녀가 괴로워했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날에.

Sir, I feel
The story linger in my heart. I fear
'Tis long and tedious, but my spirit clings
To that woman. So familiarly
Do I perceive her manner and her look
And presence, and so deeply do I feel
Her goodness, that not seldom in my walks
A momentary trance comes over me,
And to myself I seem to muse on one
By sorrow laid asleep or borne away,
A human being destined to awake
To human life, or something very near
To human life, when he shall come again
For whom she suffered.³⁰⁾

30) 같은 글, p. 191, ll. 362-75. (강조 인용자)

아미타쥬가 그려 보는 이러한 마가렛의 모습은 바로 “선잠이 내 영혼을 가리웠었네”에서 그려진 ‘그녀(she)’의 모습과도 같다. 죽어있는 루씨가 이렇게 ‘살아나는’ 듯하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살아있을 때의 마가렛을 묘사한 다음 부분으로부터도 “선잠이 내 영혼을 가리웠었네” 5행의 죽은 루씨의 모습이 비추어짐으로써, 마가렛과 루씨는 거듭 같은 선상의 인물로 읽히게 된다.

집안을 보살피는

모든 일들에 드러났다, 사색에 잠긴
마음이 한가한 일에 주는
부주의한 고요함이. 여전히 그녀는 한숨
지었으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음은 들썩거리지도 않았다.

In every act

Pertaining to her house affairs appeared
The careless stillness which a thinking mind
Gives to an idle matter. Still she sighed,
But yet *no motion of the breast was seen,*
*No heaving of the heart.*³¹⁾

이러한 마가렛의 고요함은, Murray의 비유를 빌면 ‘감각’은 사라지고 ‘사고(thought)’만 남은 상태로서,³²⁾ 슬픔의 정수(精髓, essence)를 표현하는 바로서의 부동(不動)과 침묵이다. 이렇듯 의미로 충만한 ‘침묵’ 안에서 ‘살아 있는 루씨’와 ‘죽은 루씨’는 (혹은 마가렛은) 시인에 의해 같은 선상의 인물로 노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루씨 시편”에서의 ‘깨달음’ 혹은 삶과 죽음을 병치시켜 보는 새로운 인식의 획득은, 이미 우리가 살펴 본 대로 여러번의 반복적 응시를 (혹은 여러 개의 시편들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Ferguson의 지적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Ferguson은 워즈워스와 비문적 사고(思考)의 관련성을 말하면서, 워즈워스가 비문의 역할 가운데 중심적인 것으로 보았던 ‘보편적 애도의 마음(universal commiseration)’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메

31) 같은 면, ll. 380-5. (강조 인용자)

32) 본고의 주 6번 참조.

아리 (echo)'를 듣다.³³⁾ 이 때 '메아리'는 이미 워즈워스의 특징적 시각으로 언급된 바 있는 '근원 (origin)과 항방 (tendency)을 잇는 사고 (thought)'를 '구조적으로 체현 (體現)'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상호성 (相互性)으로서의 메아리 (the echo as reciprocity)'라는 기본적 개념으로부터 '단어들이 서로 메아리치는 형식적 구조 (the formal structure of words echoing words)'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것이다.³⁴⁾

메아리는 '반복 (repetition)'과 동시에 '울림 (resonance)'의 뜻을 내포하므로 "루씨 시편"들, 나아가서 워즈워스의 여타 시들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반복적 양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적합해 보인다. 실제로, 마음 속에 물밀 듯 밀려드는 감정의 메아리를 전하는 한 도구로서 워즈워스는 '동어 반복'의 기법을 비문에서 사용 가능한 한 기법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 아이가 죽었네 — 내 사랑하는 딸 엘리자가 죽었네,
 아름답고, 명랑하고, 다정한, 내 자식이 죽었네,
 너를 오래도록 아까워하며 아비가 슬퍼하노라,
 너를 오래도록 아까워하며 아비가 슬퍼하노라,
 아까워하며 —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잊지 않음을
 더 행복한 시절이 오리니
 내 자식을 내가 다시 보게 될 때에
 영원히 너와 살게 될 것이니.

She is *gone* — my beloved Daughter Eliza is *gone*,
 Fair, cheerful, benign, my child is *gone*.
 Thee long to be *regretted* a Father mourns,
Regretted — but thanks to the most perfect God! not lost
 For a happier age approaches
 When again my child I shall behold
 And live with thee for ever.³⁵⁾

비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진실성' 이므로,³⁶⁾ 동어 반복이

33) Ferguson, 앞의 책, 162.

34) 같은 책, 166.

35)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I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55. (강조 인용자)

36) Wordsworth가 Pope가 쓴 비문 등을 비판하는 주된 기준도 그것들이 '진실한 애도

적지 않게 들어 있는 이러한 비문을 워즈워스는 ‘잘 된 비문’의 한 예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단어나 생각을 ‘반복’ 하는 것보다도, 똑같은 상황을 시간의 격차를 두고 ‘다시 봄’ 이야기로 워즈워스가 “루씨 시편”들에서, 혹은 “틴턴 사원 (Lines written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이나 『서시 (The Prelude)』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작업의 요체이다. ‘과거’를 다시 봄으로써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의 연결점을 읽으려는 것이 “틴턴 사원”이나 『서시 (The Prelude)』에서의 구도라면, ‘삶’에서 출발하여 ‘죽음’을 향하고 다시 ‘죽음’ 이후에 서서 ‘삶’을 째뚫어 보고자 한 것이 “루씨 시편”이라는 ‘비문 (epitaph)’들 안에서 워즈워스가 시도한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시 봄’ 혹은 ‘메아리침 (echoing)’에의 시도는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그가 읽고자 한) 의미의 확장을 불러다 주는 것으로 인식되며, 또 의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비문 양식’이란 워즈워스의 작시(作詩) 전반을 특징짓는 명칭으로 합당하며, “루씨 시편”들은 진실된 ‘애도의 마음’을 기반으로 한 ‘비문적 시’들로 읽힌다. 쉬운 언어로 감동을 전달하며, 단절된 존재들을 자꾸만 ‘다시 봄’으로써 그들간의 ‘연결점’을 읽으려 한 워즈워스의 노력이 그 가운데에 있고, 시어가 ‘이미 말한 바’ 이상의 의미를 암시하고 울려낼 수 있다는, 곧 스스로를 넘어선 ‘정신 (spirit)’으로 ‘체화 (incarnation)’ 할 수 있다는 언어의 공명(共鳴)에의 믿음을 워즈워스가 가졌다는 점 또한 그 가운데에 있다.

참고문헌

Primary Sources

- Wordsworth, William.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Ed. W.J.B. Owe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_____ . *Lyrical Ballads, and Other Poems, 1797-1800*. Eds. James Butler
 and Karen Green. Ithaca: Cornell UP, 1992.

의 마음’이 없이 기예에 의존하여 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운문 보다는 자연스러운 산문으로 써어진 비문을 칭찬하는 이유도 바로 ‘평범하고도 진부한 생각’을 가장 진솔하게 담아낸 것이기 때문이다.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47-9. 또는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III”,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151.

- _____. *The Prelude: 1799, 1805, 1850*. Eds. Jonathan Wordsworth, M.H. Abrams and Stephen Gill. New York: W.W. Norton, 1979.
- _____. *The Poetical Works of William Wordsworth*. Eds. Ernest de Selincourt and Helen Darbishire. 5 vols. Oxford: Oxford UP, 1940-49.
- _____. "The Ruined Cottage,"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Eds. M.H. Abrams (et al.). Two vols. New York: W.W.Norton, 1979. vol. 2, pp. 183-195.

Secondary Sources

- Brenkman, Jean. *Poetic Language in Wordsworth's Lyrical Ballads: Theory and Practice*. Diss. U. of Iowa, 1976.
- De Man, Paul. *The Rhetoric of Romanicism*. New York: Columbia UP, 1984.
- Devlin, David Douglas. *Wordsworth and the Poetry of Epitaphs*. New York: Barnes and Noble Books, 1981
- Ferguson, Frances. *Wordsworth: Language as Counter-Spirit*. New haven: Yale UP, 1977.
- Hartman, Geoffrey H. *Wordsworth's Poetry 1787-1814*. New Haven: Yale UP, 1964.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Oxford: Clarendon P, 1957.
- Murray, Roger N. *Wordsworth's Style: Figures and Themes in the Lyrical Ballads of 1800*. Lincoln: U. of Nebraska P, 1967.
- Scodel, Joshua. *The English Poetic Epitaph: Commemoration and Conflict from Jonson to Wordsworth*. Ithaca: Cornell UP, 1991.